

# 《金瓶梅詞話》의 'V+將+(O)+(X)' 구조 분석

牟珍奭\*

<목 차>

1. 서론
2. '將'의 기본 문형
  - 2.1 '將'의 동사 용법
  - 2.2 V+將+(O)
3. '將'과 방향보어
  - 3.1 V+將+(O)+방향보어
  - 3.2 V+將+(O)+방향보어+了
  - 3.3 V+將+O+來+(Y) 連動 구조
  - 3.4 V+不+將+단음절 방향보어
4. 결론

## 1. 서론

근대한어 시기의 '將'자는 품사 상의 변화가 빈번하였고 그 용법도 풍부하였다. 이런 까닭에 근대한어 후기의 문헌 자료에서는 '將'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용법을 지닌 다른 성분이 혼용되는 층위화(layering)<sup>1)</sup> 현상이 존재하였고, 동사 용법에서 분화(divergence)<sup>2)</sup>하여 여러 단계의 문법화 과정이 동시에 출현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Paul Hopper가 제시한 문법화 원리인 층위화(Layering)는 동일 기능 범주 안에서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시적으로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여러 어원에서 출발해 문법화한 문법소들이 공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능 범주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이다.

2) 분화(Divergence) 역시 Paul Hopper의 문법화 원리인데,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여러 형태의 문법소들이 의미, 기능 상 나누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하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將'자에 일어난 문법화의 일면을 관찰할 수 있는 'V+將+(X)' 구조<sup>3)</sup>는 이미 魏晉시기에 출현하였고 唐宋시기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元明시기에는 그 용법과 사용 빈도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 구조는 清代 후반에 이르러서야 점차 사라졌다. 물론 현대한어의 일부 지역 방언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sup>4)</sup> 표준 현대한어에서는 문법화의 최종 단계인 '將'의 조사 기능이 'V+了' 형식에 대체되어 소멸되었다.

《金瓶梅詞話》<sup>5)</sup>가 저술된 明代는 근대 한어 시기의 통사 구조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완숙하고 안정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근대 한어와 관련된 여러 쟁점 사항이 시기 상 대부분 明代 이전에 발생되었거나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미 출현했던 'V+將' 구조는 明代의 《金瓶梅詞話》(이하 '《詞話》'로 약칭)에서뿐 아니라 清代의 언어 자료에서도 풍부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將'이 문법화 과정을 통해 동사에서 보어로, 보어에서 조사로 변해 가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문헌 자료에 출현하는 'V+將' 구조의 용법과 의미는 動態助詞나 方向補語와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동태조사로서 '將'은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내는 '了'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지만, 실상 근대 한어시기의 문헌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문법화 과정의 어느 한 단계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문법화 과정의 후기 단계가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후대로 갈수록 조사 용법 뿐 아니라 여러 용법이 혼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詞話》에서의 상황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전히 實詞인 動詞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動詞와 助詞의 중간 단계인 보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趙元任(1968)은 'phase complement'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呂叔湘은 이를 '動相補語'라 번역하였다.<sup>6)</sup> 動相補語는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내는 보어 성

3) 여기서의 'V+將+(X)' 구조는 'V+將' 구조 뿐 아니라 'V+將+C' 구조 및 목적어를 거느린 구조까지 가리킨다.

4) 喬全生, <山西方言的"V+將+來/去"結構>, 中國語文, 1992. 第1期.

5) 《金瓶梅詞話》, 人民文學出版社, 2000年.

6) 趙元任(《A Grammar of Spoken Chinese》)이 "일부 보어는 중심동사의 동작, 상태를 표시할 뿐 동작의 결과나 목적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정의한 'phase complement'를 呂叔

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結果補語와 完成體 助詞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법화 과정 중에 있는 성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어보다는 문법화 진행 정도가 높지만 조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속선 상에서 가장 구체적인 의미의 한 극과 가장 추상적인 의미의 한 극을 가정해 볼 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로 진행된 형태로 볼 수 있다.

林新年(2006:203)은 《祖堂集》의 '將'자에 대한 분석에서 아래와 같이 문법화 과정을 분석했는데 이러한 기제는 《詞話》의 '將'자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연속선(continuum) 상에 나타나는 술어 동사에서 동사 접사까지의 변화를 보면 완전한 내용어가 문법적 성질을 지닌 단어로 변화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문장에서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단어에 붙여 쓰이는 접어가 될 수 있다. 최후에는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음절 조절의 역할을 하는 접사로 변하여 문법성만을 표시하는 단계로 추상화(abstraction)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래와 같이 문법성의 연속변이로 나타내 볼 수 있다.

將(술어동사)→將(결과보어)→將(동태조사)→將(구조조사)→將(동사접사)

문법성의 연속변이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적이고 분절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성질을 지닐 수 있고 다음 단계로의 변화를 내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실제 문헌자료의 통사 구조에서는 구분하기가 훨씬 어렵다. 통사 구조 뿐 아니라 의미의 탈색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통시적 변화가 공시적 특성처럼 나타낼 때는 문법화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법화 기제에 따라 '將'의 문법화 등급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將(동사접사) > 將(구조조사) > 將(동태조사) > 將(결과보어) > 將(술어동사)

湘(1979)은 '動相補語'라 번역했지만 丁邦新(1980)은 '狀態補語'라 하였다.

왼쪽 끝에 자리한 동사 접사는 허사로서 문법화의 최종 단계이며 문법화 정도가 가장 큰 단계이다. 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실사이다. 접사 단계에 들어서면 실상은 문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미약하여 의미 파악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의미적으로 완전히 탈색되고 어법적 기능도 상실하여 문장에서 탈락되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한어의 후기 작품이라 볼 수 있는 《詞話》에는 상기 다섯 단계가 혼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동사 단계의 예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보어나 조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형식인 '將'의 동사 용법과 'V+將+O'의 연동문 형식을 살펴볼 것이고, 3장에서는 2장의 구조를 토대로 발전했으며 방향보어가 주요성분을 이루는 'V+將+(O)+(X)'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사 뒤 '將'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了'가 사용된 문장을 찾아 비교해 보려 한다.

## 2. '將'의 기본문형

### 2.1 '將'의 동사 용법

《詞話》 시기에 '將'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문법화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실사로서의 동사 용법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사로서 '將'은 부정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조동사가 앞에 자리할 수 있으며 목적어와 보어를 직접 거느릴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동사 '將' 뒤에는 단순방향보어 '去'나 '來'가 오며 선행동사와 함께 복합방향보어를 거느리는 경우도 많다. '將'자 자체에 趨向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미 상 방향보어와 호응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동사 '將'의 본뜻은 '攜帶', '挾持'이다. 《說文解字》에서는 '將'자를 "帥"이다.

寸자를 따르고 醬의 省聲이다.”라고 풀이하였다.<sup>7)</sup> 그런데 ‘帥’자를 명사로 볼 것인지 동사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고대의 字書에는 동일한 품사로 互訓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說文解字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帥는 彳率于이다. 行部에 이르기를 彳率于은 將이라 하였다. 두 글자는 호훈한다. 의례, 주례, 고문에는 彳率于자를 대부분 率자로 쓴다. 금문에서는 대부분 帥자로 쓴다.”<sup>8)</sup> 그러므로 段玉裁의 설명대로라면 ‘將’자는 명사로서 ‘장수(將帥)’의 의미가 아니라 ‘거느리다(率領)’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동사로서 의미가 ‘將’자의 본뜻인 것이다.

다음은 《詞話》에 쓰인 동사 용법이다.

- (1) 那衆獵戶先把野味將來, 與武松把盞, 吃得大醉。(1回:8)  
그 사냥꾼들이 먼저 사냥물을 가져와서는 무송에게 술을 권하여 취하도록 마셨다.
- (2) 他若說不便當, 定要將去家中做, 此事便休了。(3回:38)  
그 사람이 불편하다며 굳이 가져가 집에서 하겠다면 이 일은 틀어진 겁니다.
- (3) “將曆日去, 交人揀了黃道好日, 奴便動手。”(3回:41)  
“달력을 가져가서 좋은 날을 잡게 하시면 제가 곧바로 시작할게요.”
- (4) “若是乾娘見外時, 只是將了家去, 做還乾娘便了。”(3回:42)  
“만약 할머님이 불편하시면 집으로 가져가 만든 다음 할멈께 돌려 드리면 되겠지요.”
- (5) “這禮物決不好受的, 你還將回去。”(30回:380)  
“이 예물은 절대 받을 수 없으니 자네는 다시 가져가도록 하게.”
- (6) “家老爹沒吩咐, 教小的怎敢將回去, 放在老爹這裏也是一般。”(30回:380)  
“저희 나리께서 분부가 없었는데 어찌 소인더러 감히 가져가라 하십니까요. 나리 덕에 두어도 매일반입니다.”

동사 ‘將’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 연동문 형식으로 선행 동사 자리에 올 수도 있으며 부사의 수식을 받고 심지어 동태조사를 거느릴 수 있다.<sup>9)</sup> ‘將’이

7)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 1999, p.67上. “帥也. 從寸, 醬省聲.”  
8)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8, p.121上. “帥當作彳率于. 行部曰, 彳率于將也. 二字互訓. 儀禮、周禮古文彳率于多作率. 今文多作帥.”  
9) 조사에 따르면 《詞話》에서 동태조사 ‘了’를 거느린 동사 ‘將’은 예문 (4) 하나뿐이다.

선행하는 연동문 형식의 후행 동사는 '來'나 '去'가 오는데 역시 목적어를 이동시키는 '將'의 동사 의미를 보조해 준다. '將'의 동사 용법은 통사구조 상에서 'V+將' 구조와 뚜렷한 차이를 지니며 의미적으로도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문법화 정도를 나타내는 연속선 상에서 한 극을 차지한다. '將'의 동사 용법은 'V+將' 구조의 문법화 현상을 가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將'의 부사 용법, 개사 용법과는 달리 언급할 필요가 있다.

## 2.2 V+將+(O)

### 2.2.1 V+將

'V+將' 구조의 '將'은 앞서 언급한 동사 용법과 달리 선행동사의 영향으로 설사 동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는 연동문의 형식에서 선행동사의 의미가 '將'과 같거나 비슷할 때 더욱 뚜렷해지는데, 선행동사가 동사 '將'의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의미의 탈색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曹廣順은 선행동사의 이러한 영향이 'V+將' 구조 내의 '將'자가 지닌 병렬동사로서의 지위를 동요시켰으며 이후 '將'자에 일어나는 변화에 단서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詞話》에서 'V+將' 구조로만 이루어진 예문은 아래 (7), (8)과 같이 겨우 두 개뿐이고, 대부분은 다음 단락에서 다루게 될 'V+將' 구조와 보어가 결합된 형식이다. 아래 예문 (7)에서는 '顧'와 함께 하나의 동사처럼 사용되었고 (8)은 연동구조로 후행 동사구가 이어진다. 동사로서의 '將'은 목적어를 취하거나 보어가 따르는 타동사인데 선행동사에 접사처럼 붙어 어법적 기능도 없어 보인다.

- (7) 那春梅聽見，和迎春、玉簫等慌的行回不顧將，拜了賁四嫂，辭的一溜烟跑了。  
(46回:608)

춘매가 듣고서 영춘, 옥소 등과 허둥대 어찌할 바를 몰라 분사 안택에게 인

사를 하고 내빼듯이 몰려 나왔다.

- (8) 金蓮當初用毒藥擺布死了漢子，被西門慶占將來家，又偷小廝，……。  
(87回:1322)

금련이 애초 독약을 놓아 사내를 죽이고 나서 서문경이 차지해 집으로 데려왔는데 다시 어린 종과 사통하고, …….

- (9) 難爲吳道官，晚夕謝將，又叫了個說書的，甚是破費他。(35回:456)

오 도관을 힘들게 했는데 저녁에 예를 올리면서 다시 강담가를 불러와 그에게 몹시 손해를 끼쳤다.

예문 (9)는 翟燕(2007)의 예문인데 전체 《詞話》에서 '晚夕謝將'의 형식으로 두 개의 예문이 보인다. 하지만 이 예문의 '謝將'은 단지 형식상 'V+將' 구조이지 (7), (8)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없다. 白維國의 《金瓶梅詞典》에 따르면 '謝將'은 '도사가 신에게 제례를 지내는 것'이라 풀이하고 있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다도 白의 의견이 타당하다.<sup>10)</sup>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將'은 동사나 조사가 아니라 명사인 '神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2.2 V+將+O

《詞話》에서 'V+將' 구조의 '將'은 이미 虛化되어 동사로서의 의미가 강하지 않다. 하지만 'V+將' 구조의 뒤에는 선행 동사의 영향으로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다. 曹廣順은 明代 이후 'V+將' 구조에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져 목적어를 지닌 구조가 줄어들고 보어, 특히 복합방향보어를 지닌 구조가 갈수록 증가했다고 하였다. 실제로 《詞話》에서 'V+將' 구조 뒤에 목적어만을 거느린 구조는 많지 않다. 아래 형식은 'V+將' 형식 뒤에 목적어를 거느린 구조이다.

- (10) 王婆舀將水，點一把火來，登時把靈牌并佛燒了。(8回:101)  
왕 노파는 물을 갖고 불을 지펴서 즉시 위패와 불상을 태웠다.
- (11) 這西門慶聽了婦人之言，走到前邊，叫將來興兒，無人處問他始末緣由。  
(25回:319)

10) 白維國, 《金瓶梅詞典》, p.591. “謝將: 醮儀之一, 拜謝請到的神將。”

서문경은 부인의 말을 듣고 앞으로 가서 내홍을 불러 인적 없는 곳에서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12) 手中拿將一搭紙, 見了玉樓, 只說: “尋不見草紙, 我往房裏取草紙去來。”

(79回:1235)

손에 종이 한 뭉치 들고 옥루를 만나서는 “휴지를 찾을 수 없어 방안에 휴지를 가지러 갔다 왔어요.”라고만 말했다.

(13) 前邊叫將張勝、李安, 旋剝褪去衣裳, 打三十六棍。(94回:1420)

앞 쪽에서 장승, 이안을 불러 즉시 옷을 벗기고 곤장 30대를 때리게 했다.

《詞話》에서 'V+將+O' 구조는 모두 20개가 출현하는데 이 구조에 쓰인 동사는 모두 12개이다. 조사에 따르면 출현한 동사는 '舀', '踢', '叫', '拿', '撲', '掐', '起', '討', '倒', '挑', '采', '放' 등으로 공교롭게 대부분 단음절 타동사이다. 또한 '將'의 선행 동사가 지닌 의미는 '將'의 동사 의미와 달라 각 예문에 사용된 'V+將+O' 구조의 '將'은 한편으로 음절수를 보충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王國楙(2004)에 의하면 '將'은 처음에 동사였으나 최후에는 하나의 음절로 虛化하였고 결국 선행동사의 음절을 조절하는 '音節助詞'가 되었다고 하였다. 전체 한어사를 통틀어 볼 때도 근대한어 시기에 접어들어 단음절 단어가 쌍음절화 되어 그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3. '將'과 방향보어

#### 3.1. V+將+(O)+방향보어

曹廣順은 《近代漢語助詞》에서 '將'자가 이루는 'V+將' 구조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V+將' 구조이고 둘째는 'V+將+O' 구조이며 세 번째는 'V1+將(+O)+V2' 구조, 네 번째는 'V+將(+O)+D.C' 구조이다. 그는 晚唐五代를 전후로 'V+將+(X)' 구조가 'V+將+D.C' 형식으로 통일

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V+將' 구조 뒤의 방향보어는 단순방향보어와 복합 방향보어로 나눌 수 있는데 《詞話》에서는 단음절인 단순방향보어를 사용한 예문이 모두 54개, 쌍음절인 복합방향보어를 사용한 예문은 90개가 출현하였다. 이들 예문은 모두 목적어를 지니지 않았다. 아래 표는 'V+將+D.C' 형식에 출현하는 동사의 종류이다. 이 형식의 동사 역시 단음절 동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특히 쌍음절 방향보어의 동사는 모두 단음절 동사임을 알 수 있다.

<표 1>

보어의 종류	동사의 종류
단음절 보어	送, 騎, 拴, 跪, 挑, 死, 摸, 題, 與, 困, 驀, 討, 請, 撲, 覘, 撞, 罵, 走, 要, 說, 擺, 打, 娶, 遞, 迎, 看, 待, 搶, 奔, 交還, 打罵, 刮刷, 招惹, 杜絕, 裁派, 迎賀, 打發, 分付
쌍음절 보어	搖, 罵, 掀, 打, 爭, 遞, 除, 鬧, 縫, 樓, 迎, 灌, 怕, 扛, 流, 扒, 鑽, 亂, 趕, 拿, 拉, 接, 醉, 拔, 落, 露, 飛, 翻, 送, 說, 哭, 抽, 喜, 惱, 撐, 傳, 跳, 挺, 嘔, 嚷, 開, 摸, 走, 站, 算, 捧, 想, 涎, 叫, 擺, 點, 批, 拈, 押, 弄, 抱, 吊, 篩, 邈, 掠, 與, 提, 笑 (呵呵大笑)

### 3.1.1. V+將+단순방향보어

'V+將' 구조 뒤에 목적어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어 성분이 결합된다. 《詞話》 시기에는 이미 단순방향보어보다 복합방향보어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將'자와 결합한 동사와 복합방향보어의 종류를 보면 이러한 구조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詞話》에는 전 권을 통틀어 54개의 단순방향보어를 지닌 예문이 보인다.(아래에서 다루게 될 목적어를 포함한 'V+將+O+단순방향보어' 형식은 모두 78개) 단순방향보어는 크게 단음절 동사인 '去'와 '來'로 나눌 수 있는데 去의 예(3개)보다는 來의 예(49개)

가 훨씬 많아 대부분을 차지한다. 去와 來 외에도 '起'와 '下'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각각 한 개의 예문 밖에 없다.

- (14) 到次日清早晨, 西門慶起來梳頭, 忽然一陣暈起來, 望前一頭搶將去。  
(79回:1223)  
이튿날 이른 아침 서문경이 일어나 머리를 빗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 (15) 看着婆子小肚上, 只一頭撞將去, 險些兒不跌倒, 却得壁子碍住不倒。  
(5回:60)  
노파의 배를 향해서 머리를 뺨다 박으니 거의 쓰러질 뻔 했는데 벽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
- (16) 於是一頭撞將去, 兩個就揪扭打在一處。(26回:337)  
이에 머리를 들이 박으며 두 사람은 붙잡고 한 데서 싸웠다.

위의 세 예문에서 '將'자는 동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翟燕(2007)의 견  
해에 따르면 'V+將' 구조 속의 '將'은 唐代에 이르러 虛化되는데 허화의 중요한  
계기는 'V+將' 구조 속에 진입한 동사의 의미가 동사 '將'과 유사하거나 '휴대'  
의 의미를 띠면서부터라고 한다. 선행동사가 유사하거나 같은 의미를 띠면서  
후행하는 '將'자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  
기 예문에서 '將' 앞에 쓰인 동사의 의미는 운반이나 휴대와는 전혀 관련 없으  
며 목적어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將' 역시 동사 용법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학설에 따르면, 《詞話》 시기의 'V+將' 구조는 이미 翟燕이 언  
급한 唐代의 특징과는 무관하게 조사 단계로 진행되었으니 여기서는 동태조사  
내지는 음절조사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게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예문을 살펴보면 단순히 통사적 구조의 유사성으로  
'將'을 동태조사로 보기에 애매한 점이 많다. 동태조사나 동사의 음절을 보충하  
는 음절조사로 본다면 그 통사적 구조는 '[V+將]+C'가 되어야 하나 도리어  
'V+[將+보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 후자의 형식으로 본다  
면 '將+去'를 일종의 복합방향보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이유는

동사 '將'이 지닌 이동성 때문이며 이 특징이 방향동사 '去'와 어울릴 수 있다고 본다. 즉 '搶'이나 '撞'이 지닌 강한 동작성과 '[將+去]' 형식이 지닌 이동성이 결합하여 거꾸러지고 부딪치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詞話》에서 '去'를 보어로 사용한 'V+將+단음절보어' 구조는 위에서 예로 든 예문 3개뿐이고 동사는 '搶'과 '撞' 두 종류이다. 아래는 '來'를 방향보어로 사용한 예문이다.

- (17) 春梅走將來, 說:“娘沒的打他這幾下兒, 與他搥痒兒哩。…”(83回:1275)  
 춘매가 걸어 와서는 말했다. “아씨가 저 사람을 몇 번 때리지도 않았어요. 가려운 곳 긁어 준 거지...”
- (18) 十四日, 賁四同薛姑子催討, 將經卷挑將來, 一千五百卷都完了。  
 (59回:816)  
 14일에 분사는 설 비구니와 독촉을 해서 불경을 가져와 천오백 권이 모두 완료되었다.
- (19) 我才打翠花鋪子裏討將來, 今日要送來, 不想奶奶又使了牢子去。  
 (95回:1432)  
 나는 겨우 취화 가게에서 얻어와 오늘 보내려 했는데 뜻밖에 마님이 또 옥 줄을 파견해 보냈다.

상기 예문에 출현한 '將'자 역시 동태조사라기보다는 동사의 이동성을 보충하는 일종의 복합방향보어로 보인다. 만약 동태조사로 본다면 예문 (17)의 경우에는 완료 의미의 '了'라기보다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통사적 구조와 사건 전개를 기준으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예문 (18), (19)의 경우에는 '將'의 동사성이 남아 있다. '將'이 본래 목적어를 동반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난 경우라 볼 수 있다.

이처럼 'V+將+D.C' 구조에서 '將'의 성격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王國楨은 'V+了+趨'와 'V+將+趨'의 비교에서 '了'와 '將' 둘의 역할이 음절 조절에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학자들이 근대한어 시기를 지나면서 'V+了+趨' 형식이 'V+將+趨' 형식을 대체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了'와 '將' 사이에는 통사적으로든 어법적으로든 모종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王國楙은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을 음절 조절에 두고 ‘음절조사’라 지칭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견은 ‘將’의 동태조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將+단순방향보어’의 구조에서 ‘來’가 보어가 되는 예는 ‘去’에 비해 풍부한 편이다. 다음 단락에서 다룰 ‘V+將+복합방향보어’의 종류만 보더라도 ‘來’와 결합된 예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來’와 ‘去’의 허화 과정에서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來’보다는 ‘去’의 동사성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복합보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에 ‘來’는 방향동사로서의 의미가 더 일반화되고 추상화되어 사용 빈도도 높아진 것이다.

&lt;표 2&gt;11)

《詞話》의 방향보어	제1조	來, 去
	제2조	上, 下, 起
	제3조	出來, 出去, 過來, 過去, 進來, 進去, 上來, 下來, 起來

### 3.1.2. V+將+복합방향보어

《詞話》에서 ‘V+將+복합방향보어’ 구조는 매우 발달해 있다. 총 90여개가 출현하는데 특히 ‘來’와 결합된 복합방향보어가 ‘去’보다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起來’, ‘下來’, ‘出來’의 경우에는 다른 형식에 비해 다수를 차지한다. 이 형식의 경우는 통사적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V+了+복합방향보어’ 형식과 비교되어 ‘將’을 조사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陳剛은明代 초, 중기 작품에서 보이는 ‘V+將+趨’ 식의 ‘將’이 ‘당시 출현’한 상황(동작의 출현)을 나타내는 반면에 과거의 출현과 출현을 가상하는 상황(동작의 완성)

11) 許仰民, <論《金瓶梅詞話》的趨向動詞>, 河南教育學院學報 總84期, 2003.

에 대해서는 왕왕 'V+了+趨'식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將'이 지닌 동태조사 기능에 대한 陳剛의 견해는 다른 학자들에 비해 비교적 세밀한 것이어서 주의할 만하다. 아래는 표는 《詞話》의 'V+將+쌍음절 방향보어' 형식에 출현한 보어의 종류이다.

<표 3>

종류	起來	下來	出來	過來	進來	上來	回來
출현 횟수	31	16	23	4	3	6	0
종류	起去	下去	出去	過去	進去	上去	回去
출현 횟수	0	1	4	0	0	1	1

陳剛은 위의 쌍음절 방향보어를 다시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動向'을 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 시작, 지속' 등 '동태(aspect)'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V+了+趨'식이 'V+將+趨'식을 대체함에 있어서 선후의 차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방향보어가 '동태'를 표시할 때는 그 소멸 시기가 비교적 더디게 나타났지만 동향을 표시할 경우에는 'V+了+趨'식으로의 변환이 상대적으로 빨랐다고 보았다. 曹廣順 역시 晚唐五代 시기의 'V+將' 구조를 논하면서 '將'의 기능이 주로 보어와 함께 모종의 '動態'(개시, 지속, 완성 등)를 표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결국 '將'자가 동태조사로서 문장의 동태를 단독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王國楨은 '將'의 동태 의미는 어쩌면 완성 의미가 유일할 수 있으며 시작, 지속의 의미는 '將'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방향동사가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3.1.2.1. V+將+進來

《詞話》에서 ‘進來’는 대부분 동사로 단독 사용되었으며 ‘V+將’구조 속에서는 대부분 動向을 표시하였다. ‘V+將+進來’ 형식은 모두 세 개뿐이다. 선행동사 ‘挺’, ‘嚷’, ‘走’는 동작 ‘進來’가 이루어질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연동 구조로 보인다. 그렇다면 ‘將’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0) 下面單裙子內却似火燒的一條硬鐵, 隔了衣服, 只顧挺將進來。(53回:711)  
아래 쪽 치마 속은 오히려 달아오른 쇠막대기 같았는데 옷 속에서 내밀고 들어왔다.
- (21) 西門慶假意淨手起來, 吩咐玳安, 交他假意嚷將進來, …。(54回:730)  
서문경은 소변보러 가는 척해서 대안더러 거짓으로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게 했다.
- (22) 正在嘮嘮叨叨, 喃喃洞洞, 一頭罵, 一頭着惱的時節, 只見那玳安走將進來。(57回:771)  
한참 투덜투덜 구시렁대며 욕을 퍼붓고 화를 내고 있을 즈음 대안이 달려 들어와 불렀다.

‘走將進來’의 경우 ‘走進來’ 형식으로 9개, ‘走將來’ 형식으로는 4개가 출현했지만 ‘走了進來’의 형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 3.1.2.2. V+將+過來

《詞話》에서 ‘將’이 생략된 ‘V+過來’ 형식은 출현하나 ‘將’이 ‘了’로 대체된 ‘V+了+過來’ 형식은 출현하지 않는다. 또한 ‘過來’가 ‘進來’처럼 동사로 단독 출현하는 예문이 많다. ‘V+將+過來’ 형식은 모두 네 개가 출현하였다. 이 형식의 ‘將’은 ‘V+將+進來’의 것과는 달리 진행 의미로 파악할 수 없다. 음절조사나 구조조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將’이 생략된 ‘遞過來’나 ‘送過來’의 경우도 발견된다.

- (23) 被這漢子隔桌子輕輕提將過來, 拖出外間靈桌子前。(87回:1328)  
이 사내에게 탁자를 사이로 힘없이 들러서 바깥의 위패를 모신 탁자 앞으로 끌려 나갔다.
- (24) “怎的肉果兒也不揀一筋兒?” 揀好的遞將過來。(1回:16)  
“어찌 육과는 한 짓가락도 안대세요?” 집어 든 것을 건넸다.
- (25) 那婆子揀好的遞將過來, 與婦人吃。(3回:46)  
그 노파는 집은 것을 건네서 부인에게 먹였다.
- (26) 周總兵送將過來, 可一時之情耳, 要這財何用?(29回:372)  
주총병이 보내 온 것은 한 때의 정이거늘 이 재물을 어떻게 쓰겠소?

### 3.1.2.3. V+將+起來

‘起來’는 ‘V+將+복합방향보어’ 형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보어이다. 문법화 이론에서는 어휘의 일반화와 추상화가 사용 빈도를 제고시킨다고 하였다. ‘起來’의 본 의미는 ‘일어나다’이지만 파생 의미로 어떤 동작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결국 陳剛이 설명한 동태(Aspect)의 뜻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王國楙은 ‘將’이 시작, 지속, 완성 등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曹廣順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將’이 완성을 나타낸다는 데에는 일면 동의하지만 시작, 지속의 의미는 ‘將’이 아닌 후속 방향동사가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起來’가 포함된 형식을 조사해 보면, ‘將’자 없이 동사와 직접 결합한 예문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將’자 자체에 시작을 나타내는 동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예문 (27)이나 (29)처럼 완성 또는 실현을 나타내는 의미로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 (27) 淫婦就起來連忙替他送茶, 又忪忽兒替他蓋被兒, 兩個就弄將起來。(72回:1038)  
음부는 곧바로 일어나 얼른 그에게 차를 가져다주고 다시 재빨리 그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둘은 희롱하기 시작했다.
- (28) 才叫了俺每去, 說將起來, 酒席上就不因不由做了這門親。(41回:540)  
비로소 우리를 불러 갔는데 말을 나누다 보니 술자리에서 부지불식간에 혼사를 이뤘다.

- (29) 那潘金蓮就假做喬張，就哭將起來，說道：“我曉的你倚官仗勢，倚財爲主，把心來橫了，只欺負的是我。(43回:564)  
반금련은 거짓으로 가장해서 울면서 말했다. “내가 아는 당신은 권세를 등에 업고 재물에 의지해서 수틀리면 업신여기는 사람이 저군요.”
- (30) 喜將起來笑嘻嘻，惱將起來鬧哄哄。(46回:610)  
즐거우면 히죽거리고 화가 나면 노발대발했다.

‘V+將+起來’ 형식은 모두 31번 출현했으며 사용된 동사는 ‘笑(6), 流(2), 惱(2), 拉(2), 掀, 鬧, 縫, 搜, 怕, 扒, 亂, 扛, 說, 哭, 抱, 弄, 拈, 點, 想, 算, 站, 跳, 喜’ 등 23종이다.

#### 3.1.2.4. V+將+出來

이 형식도 비교적 많이 출현하였다. 모두 23번 출현했는데 동사는 ‘爭, 迎, 鑽, 露, 翻, 抽, 亂, 傳, 嘔, 開, 嚷, 摸, 算, 捧, 叫, 押, 邈, 與, 走, 罵, 接, 搖’ 등 22종이다.

- (31) 剛才爲小廝討銀子，和爹亂了這回子，亂將出來，自我吃了，却是頂缸受氣。(46回:611)  
방금 어린 종이 은자를 청하는 일로 나리와 한 바탕 소란을 피웠는데 소란 피우고서는 저 혼자 손해를 보고 되레 대신 모욕을 당했지요.
- (32) 於是吩咐看轎，就一同起行。一面傳將出來。(49回:641)  
이에 가마를 보도록 분부하고 함께 출발하였다. 한편으로는 소식을 전하였다.
- (33) 先將符藥一把罨在口內，急把酒來大呷半碗，幾乎嘔將出來，眼都忍紅了。(53回:713)  
먼저 부약 한 줌을 입 안에 넣고 급히 술을 가져와 반 사발 정도를 벌컥 마셨더니 거의 토할 뻔하고 눈도 빨개졌다.
- (34) 直挨到巳牌時分，才有個人把匙鑰一路開將出來，隨後一個小廝拿着手巾，一個捧着銀面盆，傾了香湯，進書房來。(55回:742)  
사시 무렵에 이를 때에야 누군가가 열쇠로 열어 주었는데 뒤이어 한 하인은 수건을 들고 다른 하인은 은 대야를 받쳐 들고 향수를 쏟고 서실에 들어왔다.

3.1.2.5. V+將+下來

이 형식은 모두 16번 출현하였다. 출현 동사는 '打(6), 落(2), 除, 扛, 流, 拔, 飛, 撐, 批, 吊' 등 10종이다.

- (35) 這徐先生向燈下打開青囊, 取出萬年曆通書來觀看, 問了姓氏并生時八字, 批將下來(62回:880)  
서 선생은 등불 아래서 청낭 풀어 만세력을 꺼내 보며 성씨와 생시 팔자를 묻더니 풀이를 해나갔다.
- (36) 你與他好生仔細掛那燈, 沒的例兒擗兒的拿不牢, 吊將下來。(78回:1200)  
네가 그와 꽤나 꼼꼼히도 등을 다는 것 같더니 제대로 붙어있질 못해서 떨어져 버렸다.
- (37) 向前一把手採住他頭髮, 拖踏在地上, 輪起拐子, 雨點打將下來。(91回:1381)  
앞으로 냉큼 가서 그의 머리채를 붙잡아 땅바닥에 끌어 놓고 몽둥이를 휘둘러 빗발치듯 때렸다.
- (38) 當下兩邊皂隸, 把經濟、陳安拖番, 大板打將下來。(92回:1390)  
즉시 양쪽의 관노들이 경제, 진안을 끌어다가 곤장을 때렸다.
- (39) 入將門來, 便把氈笠兒除將下來。(1回:18)  
문으로 들어 와서 바로 전립을 풀었다.

3.1.2.6. V+將+上來

이 형식은 6회 출현했으며 출현 동사는 '拿, 遞, 涎, 擺, 篩, 醉' 등이다.

- (40) 經濟平昔酒量不十分洪飲, 又見主管去了, 開懷與韓道國三口兒吃了數杯, 便覺有些醉將上來。(98回:1471)  
경제는 평소 주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주관자가 간 것을 보고는 마음 놓고 한도국 등 세 사람과 여러 잔을 마셨더니 취기가 약간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 (41) 西門慶也回敬了。兩人坐下, 糖果熱樛按酒之物, 流水也似遞將上來。(55回:741)  
서문경도 답례를 하였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자 사탕, 과일 등 안주 거리

가 물 흐르듯 올라왔다.

(42) 吃了一回, 兩個看看吃的涎將上來. 西門慶推起身, 往後邊更衣, 就走入婦人房裏, 兩個頂門頑耍。(61回:839)

한 바탕 먹고서 둘이 보니 먹느라 몸이 흐트러졌다. 서문경은 몸을 일으켜 뒤로 가서는 옷을 갈아입고 부인 방으로 들어가서는 둘은 머리를 맞대고 희롱하였다.

3.1.2.7. V+將+下去

이 형식은 아래의 예문 하나 뿐이다. 《詞話》에서는 ‘將’이 생략된 ‘灌下去’ 형식이 발견되었는데 ‘V+下去’ 형식은 사용 빈도가 높다. 그 대표적인 것이 ‘吃下去’이다. 부정형은 ‘吃不下去’로 사용되었다.

(43) 他若問你討藥吃時, 便把這砒霜調在心疼藥裏. 待他一覺身動, 你便把藥灌將下去, 却便走了起身。(5回:63)

그가 당신에게 먹을 약을 달라고 묻거든 이 비상을 심장약 속에 섞으시고 그가 깨서 기동하거든 당신이 약을 부어 넣고 일어서 나오면 됩니다.

3.1.2.8. V+將+出去

이 형식은 모두 4번 출현하였고 동사는 ‘趕(2), 拿, 掠’ 등 3종이다. 이 형식 속의 ‘出去’는 動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拿出去’, ‘掠出去’, ‘趕出去’와 같은 표현 형식이 발견되었지만 ‘了’가 첨가된 형식은 없었다.

(44) 這裏爺娘見他有身孕, 教他哥哥祝虎, 把千金小姐趕將出去, 要行殺害。(39回:524)

이 곳 나리 마님께서 그녀가 임신한 걸 보고서 그녀의 오빠 축호를 불러 아가씨를 쫓아 보내고 죽이려고 했지요.

(45) 猪羊牛肉各切幾大盤, 拿將出去, 一壁哄他衆人在前廳大酒大肉吃着。(69回:994)

돼지, 양, 소고기를 각기 몇 개의 큰 쟁반에 잘라서 가지고 나가 한편으로 사람들을 달래 바깥 대청에서 푸짐하게 먹였다.

- (46) 把那淫婦教他領了去, 變賣嫁人, 如同狗屎臭尿, 掠將出去, 一天事都沒了。  
(86回:1312)  
그 음부를 데려 가게 해서 돈을 받고 시집보냈다. 마치 개똥이나 오줌 닦아 내듯 하루 동안의 일이 해결되었다.
- (47) “把奴才兩個鬢與我掃了, 趕將出去, 再不許進門!”(12回:140)  
“저 놈의 양 살쩍을 뽑아버리고 내쫓아서 다시는 들이지 마라!”

3.1.2.9. V+將+回去

이 형식은 하나 출현하였다. 예문에서의 '將'자는 짊어진 채 '가지고' 돌아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휘의 일반화와 추상화는 문법화 정도를 반영하는데 사용 빈도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성분에 비해 虛化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 (48) 如何這等計較, 你還把那禮扛將回去, 等我明日說成了取家來。(75回:1131)  
어떻게 이와 같이 계산하오? 역시 그 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서 내가 다음에 얘기가 되면 집으로 가져 오시오.

3.1.2.10. V+將+上去

'V+將+C' 형식이 '恨不的'의 목적어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將'의 용법은 가늠하기 어렵다. 설사 생략하더라도 어법이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음절조사'라는 표현으로 '將'의 존재를 나타낸다.

- (49) 那婆婆探頭探腦, 那兩隻眼珠兒一直向外, 恨不的趕將上去。(57回:768)  
그 노파는 머리를 내밀고 두리번거리며 두 눈알은 줄곧 밖을 향하면서 뛰어나가지 못해 안달이었다.

3.1.3. V+將+O+방향보어

이 형식도 비교적 풍부하게 출현하고 있다. 《詞話》에서는 방향보어의 중

류에 따라 이 형식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방향보어가 단음절인 경우와 쌍음절인 경우이다. 그러나 쌍음절 보어의 경우에는 단 한 개의 예문(예문 54)만 출현하고 있다. 반면에 단음절보어가 들어간 형식은 모두 78회 출현하였다. 黎錦熙는 《新著國語文法》에서 ‘將’자를 설명하며 介詞로 다루고 있는데, 그는 목적어를 거느린 ‘將’이 선행동사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목적어는 생략되었는데 개사 ‘將’만 남아 결국은 동사의 접사가 되었으며 단음절 동사의 음절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였다.<sup>12)</sup> 하지만 동사 앞으로 이동한 개사 ‘將’이 근대한어 시기에 엄연히 존재하였다. 결국 개사 ‘將’의 일부는 동사 앞으로 이동하고 다른 일부는 동사 뒤에 남아 동사의 음절을 조절했다는 설명인데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의견을 따르자면, ‘V+將+O+C’ 형식은 ‘V+將+(X)’ 구조 중에서도 초기 형식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발전한 ‘將’자도 동태조사가 아니라 음절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V+將’ 구조의 생성, 발전 과정에 대한 曹廣順의 설명을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설명이다.

- (50) 就地撮將黃葉去, 入山推出白雲來。(1回:5)  
 땅에 내려서는 낙엽을 쓸어가고, 산에 들어서는 백운을 밀어 내네.
- (51) 武松道:“感謝嫂嫂掛心。”入將門來, 便把鬪笠兒除將下來。(1回:18)  
 무송은 말했다. “형수님이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에 들어 와서는 바로 전립을 벗어 내렸다.
- (52) 那婦人餘情不斷, 見武松把將酒食來, 心中自思:“莫不這厮思想我了?...”  
 (2回:23)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부인은 무송이 술과 음식을 가져 오는 것을 보고선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자가 나를 생각하는 아닌가?...”
- (53) 你快使人送將綢絹綿子來, 休要遲了。(3回:39)  
 얼른 사람을 시켜 비단과 솜을 보내세요. 늦어선 안됩니다.
- (54) 這春梅把眼瞪一瞪, 喚將當直的家人媳婦上來, “與我把這賊人撮去了髻, ...”  
 (60回:827)  
 춘매는 눈을 부라리며 당직 하인의 처를 불러 들었다. “이 도둑년 쪽머리를 뜯어 버리고,.....”

12)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2000, p.161. “起初, 介賓而不提前; 其次, 賓去而介不動; 最後, 無賓而介自在, 便也成爲動詞尾的虛詞, 使硬拙的單音動詞得着一個字音上的調節.”

첫 번째 예문은 七言絶句의 일부로서 앞뒤 구절이 대구(對句)를 이룬다. '撮將黃葉去'의 '將+O+去'는 뒤 구절의 '出+O+來'와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앞 구절의 '將'만 동태조사로 해석한다든지 동사와 보어를 이어주는 구조조사로 설명한다면 적절치 않다. 예문 (51)의 '入將門來'를 보면 목적어 '門'을 이동시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將'은 이미 동사적 의미가 탈색되어 보인다. 하지만 예문 (52), (53)의 경우는 목적어를 이동시키는 의미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장을 보면 黎錦熙의 介詞說도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체 예문을 통해 볼 때 개사보다는 보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문 (54)와 같은 형식의 경우는 목적어도 복잡하지만 '將'과 복합방향보어 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사용이 일반적이지도 못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3.2. V+將+(O)+방향보어+了

《詞話》에서는 어기조사 '了'가 첨가된 'V+將+(O)+D.C+了' 형식이 출현한다. 목적어가 첨가된 형식은 3개, 목적어가 첨가되지 않는 형식은 9개 조사되었다. 이 형식이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면 조사 '了'가 첨가됨으로서 완료의 의미를 갖게 된다.

- (55) 一個人也拉刺將來了, 那房子賣吊了就是了, 平白扯淡, 搖鈴打鼓的看守甚麼?(20回:247)  
 사람 하나 끌어와 버리고 그 집은 팔아 버리면 그만이지 쓸데없이 뇌까리고 뽀뽀스레 지키고 앉았지?
- (56) 春梅一面又請進守備來計較了, 止受了豬酒下飯, 把尺頭回將來了。(95回:1437)  
 춘매는 한편으로 다시 수비를 안으로 청해 상의한 다음 음식가지만 받고 옷감가지는 돌려보냈다.
- (57) 月桂道: “奶奶要打我, 還是我把舅拉將來了。”(97回:1457)  
 월계가 말했다. “마님께서 저를 때리려 하시길래 제가 당신을 끌고 가려 왔지요.”

(58) 行動就說: “你家漢子說條念款念將我來了, 打發了我罷, 我不在你家了。”

(75回:1132)

결핍하면 말하기를: “당신네 남자가 꼬드겨서 나를 데려 온 거야. 나를 내 보내 줘. 당신 집에 있지 않겠어.”

### 3.3. V+將+O+來+(Y) 連動 구조

이러한 형식에서 ‘V+將’ 구조는 후행 동사절의 원인이나 방식을 나타낸다. 이 형식의 방향보어는 ‘去’나 쌍음절 방향보어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來’만 출현 가능하다.

(59) “你這嚼舌頭老淫婦, 掙將錢來焦尾靶! 怪不的恁無兒無女!”(7回:87)

“네 이 혀바닥만 놀리는 늙은 음녀야. 돈 버느라 꼬리가 타들었나! 어쩐지 아들도 딸도 없더라니!”

(60) 你本蝦鱧, 腰裏無力, 平白買將這行貨子來戲弄老娘家。(19回:231)

당신은 본래 허리힘도 없는데 공연히 이런 물건을 사와서 나를 희롱하는군요.

(61) 西門慶請任醫官來看一遍, 討將藥來吃下去, 如水澆石一般, 越吃藥越旺。

(60回:827)

서문경은 임 의관을 청해와 한 번 보게 하고는 약을 달라하니 마셨다. 물이 돌을 씻기 듯 마실수록 더 거세졌다.

### 3.4. V+不+將+다음절 방향보어

이 형식은 《詞話》에서 모두 네 개의 예문이 출현한다. 이러한 형식은 현대 한어의 ‘V+부정사+복합방향보어’의 구조와 흡사하다. (62)의 ‘請不將來’는 현대한어에서 ‘請不過來’로 표현할 수 있고, (63)의 ‘叫不將來’와 (64), (65)의 ‘拉不將來’ 역시 ‘叫不過來’와 ‘拉不過來’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 (62) “趁早與我後邊請去, 請不將來, 可二十欄杆。”(20回:252)  
 “얼른 뒤로 모시러 가지 못해! 모셔오지 못하면 두들겨 줄 테다.”
- (63) “好自在性兒, 不在家了! 往那裏去了? 叫不將來?”(69回:992)  
 “아주 제멋대로군. 집에 없다니! 어디 간 거야? 불러 오지 못해?”
- (64) “他不來, 你好歹與我拉將來。拉不將來, 回來把你這賊人打十個嘴巴。”  
 (97回:1457)  
 “그가 안와도 너 어쨌든 내게 끌고 와! 끌어오지 못하면 네 년 뺨을 갈겨 줄 테다.”
- (65) 被月桂用手拉將起來, 推着他:“我好歹拉你去, 拉不將你去, 也不算好漢。”  
 (97回:1457)  
 “월계에게 손으로 이끌렸다. 그를 밀면서 “저는 어떻게든 당신을 끌고 가야 해요. 당신을 끌어가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62)의 ‘請不將來’의 긍정 형은 ‘請將來’(月娘連忙就使琴童把這吳神仙請將來: 79回)로 사용하고 있다. ‘請將來’ 형식 속의 ‘將’을 따로 떼 내어 ‘음절조사’나 ‘구조조사’ 혹은 ‘동태조사’로 칭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라 볼 수 있다. ‘叫不將來’의 긍정 형식은 ‘叫將來’ 형식 이외에 주로 목적어가 첨가된 ‘叫+將+O+來’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叫+將+O+來’ 형식은 《詞話》 전체에서 모두 32회나 출현하여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복합방향보어 ‘出來’가 결합된 ‘叫將出來’는 2회 출현하고 있다.(老婆口裏百般言語都叫將出來: 61回)

#### 4. 결론

본래 동사 용법으로 사용되었던 ‘將’은 《詞話》에서도 휴대나 운반을 뜻하며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다. 동사 ‘將’ 뒤에는 목적어 외에도 방향성을 보충하는 방향보어가 올 수 있다. 그 방향보어는 주로 ‘去’와 ‘來’인데 이들도 초기에는 보어가 아닌 방향동사로서 연동구조의 후행동사 자격이었다. 그 후 점점 선행동사인 ‘將’의 방향의미 보충을 하는 보어로 변하여 ‘將+去/來’의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연동구조에서 후행하는 방향동사가 보어로 문법화하는 현상은 동사 '將'과 방향보어만의 현상이 아닌 전체 한어의 통사구조 상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후 동사 '將'과 보어 구조 앞에 다시 선행 동사가 출현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행동사가 동사 '將'의 의미와 같거나 가까울 때 병렬 동사로서 '將'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將'이 자체적으로 수반하던 방향보어와 결합하여 복합 방향보어 형식이 되었을 때 실상 '將'은 통사구조 상에서 동사로든 보어로든 본래 구비하고 있던 어법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V+將+단음절 보어' 구조에서 '將'이 곧바로 조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어 어휘의 쌍음절화 현상의 일환으로 '將'이 동사의 음절수를 조절하기 위해 '음절조사'가 되었다는 의견이나 동사와 보어를 연결해 주는 '구조조사'가 되었다는 의견들은 '將'의 애매한 자격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귀류적 추정은 실제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통사 구조와 문장 의미를 토대로 한 역추론적 유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법화 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V+將+복합방향보어' 구조와 이후 '將'의 소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다른 복합방향보어와의 생존경쟁에서 밀려난 '將'의 도태 현상이라고 본다. 다른 복합방향보어는 전문화(specialization)<sup>13)</sup> 과정을 거쳐 통사구조에서 자신의 자리매김에 성공했다면 '將'은 복합방향보어로서의 전문화 과정에 실패했다고 본다. 하지만 '將'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將'자에 동태조사로서의 기능이 있었다면, 그것은 '了'의 출현과 영향으로 인하여 통사구조 상의 유추(analogy)에 의한 재분석(reanalysis) 과정이 '將'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재분석 과정을 거쳐 '將'은 동태조사의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역시 중국에는 전문화 과정의 실패로 모든 기능이 '了'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3) Paul Hopper의 문법화 원리로서 한 문법소가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공시적으로 어떤 기능 범주 안에서 여러 문법소들이 공존할 때 각 문법소는 끊임없이 해당 문법 기능의 문법소로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다.

<參考文獻>

- 《金瓶梅詞話》，人民文學出版社，2000。
- 喬全生(1993)，〈山西方言的V+將+來/去結構〉，《中國語文》226期。
- 王森(1994)，〈《金瓶梅詞話》裏動詞的態〉，《古漢語研究》3期。
- 王國楛(2004)，〈“動+將+趨”式中“將”的性質〉，《語文研究》92期。
- 栗君華(2007)，〈試論《水滸傳》中的帶助詞將的補充結構〉，《現代語文(語言研究)》8期。
- 黎錦熙(2000)，《新著國語文法》，商務印書館。
- 李霞(2007)，《《金瓶梅詞話》動詞語法研究》，復旦大學 博士論文。
- 林新年(2006)，《《祖堂集》的動態助詞研究》，上海三聯書店。
- 張霞(2005)，〈‘將’的詞性及其用法〉，《沈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3期。
- 張海濤(2007)，〈淺析《金瓶梅》中‘將’的用法〉，《焦作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1期。
- 張燕來(2004)，〈《紅樓夢》中的動+將+補結構〉，《中國語文》299期。
- 翟燕(2007)，〈明清時期動態助詞將的發展演變及衰亡原因〉，《山東師範大學學報》214期。
- 鄭劍平(2003)，《《金瓶梅》語法研究》，巴蜀書社。
- 曹廣順(1995)，《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
- 曹煒(2002)，〈《金瓶梅詞話》中的動態助詞〉，《古漢語研究》56期。
- 周曉林(2007)，〈‘動+將+補’結構補議〉，《中國語文》317期。
- 陳剛(1987)，〈試論‘動-了-趨’式和‘動-將-趨’式〉，《中國語文》199期。
- 이성하(2000)，《문법화의 이해》，한국문화사。
- 許仰民(2003)，〈論《金瓶梅詞話》的趨向動詞〉，《河南教育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84期。

<中文摘要>

‘動+將’結構主要指動詞+將+趨向動詞這種格式。‘V+將+(X)’結構里的將，開始是動詞，最后虛化成了一個助詞。它是近代漢語中較為普遍的一種句法形式。然而發展到現代漢語，這種格式却萎縮了，只殘存於部分方言之中。本文從‘V+將’格式的歷史來源及與‘動+了+趨’的關係諸方面探討了‘動+將+趨’式中‘將’的性質。通過對《金瓶梅詞話》中‘V+將’結構從

語法結構、語法意義和句法形式三個方面的分析，旨在展現V+將結構在該書中的特點。

關鍵詞：V+將結構，語法話，趨向補語，近代漢語，金瓶梅詞話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30	2010.1.30	2010.2.10	2010.2.8	2010.2.28